

PDF EDITION

BIBLIA

이스라엘
따라걷기
www.biblia.co.il

holinesscode@me.com

저작권 없음 공지

본 PDF 문서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BIBLIA에서는 하나님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기록한 글과 찍은 사진입니다. 사전에 BIBLIA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인 용도의 사용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재배포 환영

본 PDF 문서는 BIBLIA 독자 및 www.biblia.co.il 회원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배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나 SNS를 비롯한 사회통신망에서 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소박한 바램이 있다면, 다운로드 후 재배포 할때에 BIBLIA를 명기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됩니다.

❖ 대형교회 참조

본 BIBLIA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소식, 그리고 학술적인 소식에 쉽게 접근하기 힘든 미자립 교회나 소형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혹,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대형교회에서 이 자료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알아서 BIBLIA에 후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후원에 대해서는 www.biblia.co.il 에서 About BIBLIA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상 holinesscode@me.com



Article at a Glance

13 내 아들이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잠언 4:10)

쿰란에만 가면, 저는 꼭 그 생각이 납니다. 약혼식을 하러 한국에 가기 전, 학교 친구와 쿰란을 잘 알고 있는 집사님과 함께 쿰란에서 성경 두루마리들이 발견된 동굴들을 일일이 다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 즈음, (쿰란의 공동체 신앙의 입장에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사해 바닷가의 유대광야에서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야하드” 공동체라 불렀는데,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정결한 삶, 금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공동체 구성원 중에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서기관들이 필사한 성경 두루마리들이 1947년에 발견되면서 유명해 졌습니다.

쿰란을 방문하면, 옛 거주지의 흔적을 돌아보게 되는데, 대부분은 정결례를 하는

정결욕조 (미크베: Mikveh)와 정결례에 사용할 물을 공급하고, 우기에 건천 (Wadi)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의 방향을 돌려서 물 저장고에 물을 대던 수로의 흔적들, 공동체가 함께 식사하던 장소와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던 방, 필사한 문서를 보관하는 항아리들을 빚고 구워내던 가마들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 거주지는 야하드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만든 마을은 아니고요, 공동체가 함께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공공 건물들입니다. 정작 야하드 공동체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절벽 곳곳에 있는 동굴에서 주거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對)로마 항쟁 중, 마을이 파괴되기 전에 두루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급히 그 많은 동굴 중에 몇 개의 동굴로 옮겼고, 그 중에 11개의 동굴이 발견된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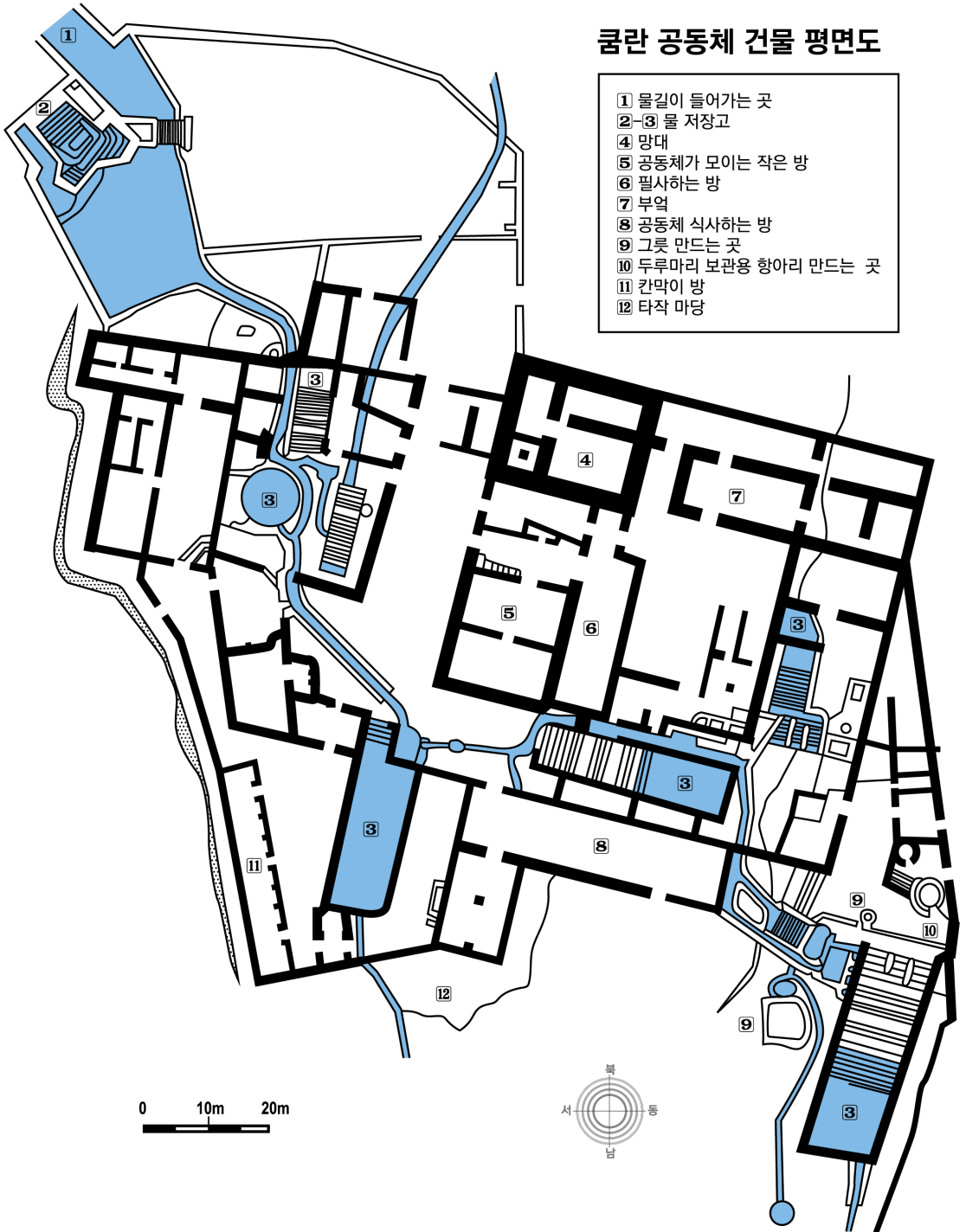
주거동굴. 야하드 공동체가 살았던 동굴 중의 하나



쿰란의 절벽과 야하드 공동체의 공공 건물.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사해와 맞닿은 유대광야의 절벽에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공동체가 함께 하는 예식이나 식사 시간에 함께 모이는 마을로 내려갔다. 사진에 보이는 절벽이 쿰란 공동체가 살던 절벽이고, 사진 오른쪽의 건물 유적이 공동체를 위한 모임 공간이다.

쿰란 공동체 건물 평면도

- ① 물길이 들어가는 곳
- ②-③ 물 저장고
- ④ 망대
- ⑤ 공동체가 모이는 작은 방
- ⑥ 필사하는 방
- ⑦ 부엌
- ⑧ 공동체 식사하는 방
- ⑨ 그릇 만드는 곳
- ⑩ 두루마리 보관용 향아리 만드는 곳
- ⑪ 칸막이 방
- ⑫ 타작 마당





두루마리를 보관하던 항아리들. 공동체 안에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비롯한 각종 문서들을 필사하고 생산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두루마리를 쓰고나면, 두루마리를 담은 항아리에 보관하여, 선반 위에 올려 놓는다.

트랙킹 하며 발로 그 동굴들을 밟아 보는 것이 제게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지는 했지만, 생각 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두루마리가 발견된 첫번째 동굴을 답사하고, 두번째 발견된 동굴로 올라가는 길은 가파른 오르막인지라,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저는 좀 긴장되기도 했는데, 더 문제는 그 동굴에서 세번째로 발견된 동굴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쿰란**의 동굴 답사를 이끄는 집사님이 워낙에 모험심이 넘치시는 분인지라, 길도 없는 절벽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덩달아 절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뾰족뾰족한 **쿰란**의 바위들은 장갑을 끼지 않으면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절벽에 얼마나 몸을 찰싹 붙였는지, 뾰족한 돌들에 온 몸이 쓸렸습니다.

그러다,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절벽을 따라 내려가다가 빨을 뺀 어 매달려 가는 중,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겁니다. “모골이 송연해진다.”라는 말이 꼭 맞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먼저 내려간 친구와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너무나 태연하게 “**이 진도사, 손을 놔.**”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은 알겠는데, 조금이라도 균형을 잃으면, 뒤는 완전 수직 절벽이기에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손에 땀이 차오르고, 좀더 간절하게 친구를 불렀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결국 매달린 절벽에서 안전하게 착지 할 수 있었는데요. 전혀 보태지 않고, 딱 **10cm**였습니다. 땅과 제 발이 떨어져 있었던 높이가요. 절벽에 매달려, 절벽을 잡고 있는 손 끝만 보고,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없으니, 10cm

인지 아닌지 누가 알았을까요? 딱 10cm 공중에 매달려서 떨어지는 목소리로, 집사님과 친구를 부르던 제 모습을 떠올리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약혼식 겸, 양가 상견례 내내, 제 배의 수많은 상처들과 아물어가는 상처들의 따끔 따끔한 고통이 알려준 교훈은 “**벼랑끝에서 손을 놓을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것을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손을 꼭 움켜잡아야할지, 아니면 놓아야 할지는 주님이 알려주시고, 저는 그저 그분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귀 기울이며 용기를 내어 그 명령을 따르기만 하라는 것 말입니다. 비록 제가 절벽에 매달려 있을 지라도 말입니다. 